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도참고자료**	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7. 9. 25(월)	담당부서	신재생에너지과 미주통상과
담당과장	이진광 과장(044-203-5160) 박찬기 과장(044-203-5650)	담 당 자	민경미 사무관(044-203-5172) 유의택 사무관(044-203-5654)

정부·업계,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태양광 세이프가드 산업피해 판정에 적극 대응키로

- 9.25.(월), 미국 태양광 세이프가드 관련 대책회의 개최 -

□ 미국 현지시간 9.22. 미**국 국제무역위원회(USITC)**는 **한국산 태양광 모듈/셀 수입**에 대해 **산업피해 판정**을 내렸다.

< 산업피해 판정 주요 내용 >

◈ **전체 산업피해 : 긍정 (중국, 말레이시아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(FTA) 미체결국 모두 해당)**

◈ **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국*의 산업피해 여부 : 한국(긍정), 멕시코(긍정), 캐나다 등 여타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(부정)**

* 미국은 FTA를 체결한 모든 국가들에 대한 산업피해를 별도로 판정토록 규정

□ 이에 정부는 **9.25.(월) 오후, 국내 태양광 업계 등과 대책회의***를 열어 국제무역위원회(ITC)의 산업피해 판정 **관련 동향을 공유**하고, **구제조치** 등 **향후 대응방안** 등에 대해 **논의했다.**

* **참석 : (정부)** 산업부(신재생에너지과, 미주통상과), 외교부(북미유럽경제외교과), **(업계)** 한화큐셀, LG전자, 현대그린에너지, 신성이엔지, 태양광협회 등

○ **태양광 업계**에서는 **향후 구제조치가 취해질 경우**, 어떠한 형태이던지 간에 **대미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**함을 피력하고,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**적극적 대응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**함을 강조했다.

○ 또한, 향후 구제조치 청문회와 사전·사후 의견서 제출 등 일련의 과정에서 국내업계에 **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제조치*가 내려질 수 있도록 시기별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**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.

* 구제조치 종류 : 산업구조조정 지원, TRQ(물량할당 후 초과분 관세부과), 쿼터, 관세 등

○ 특히 미국 태양광 시장의 축소 및 이에 따른 전·후방산업의 위축 우려로 **수입규제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미국 태양광산업협회(SEIA) 등과의 공조**와 함께, **미국 제품과 경쟁제품이 아님*을 적극 강조할 필요**가 있다고 말했다.

* 국내업계의 수출제품은 주로 유틸리티 모듈, 고효율 모듈로 美측 제소업체가 주력 생산하는 보급형 주택용 모듈과 차이

□ **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종합**해 **10.3.(화)** 국제무역위원회(ITC)에서 개최하는 **구제조치 공청회 참석, 사전·사후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** 국내 관련 업계들의 **피해가 최소화**할 수 있도록 **적극 노력**할 계획이다.

※ 향후일정 : (9.27) 사전 의견서 제출 → (10.3) 구제조치 공청회 → (10.10) 사후 의견서 제출 → (11.13) 대통령 앞 보고서 제출 → ('18.1.12) 대통령 조치 결정

○ 또한 향후 규제조치가 실제 취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**수출 다변화 및 국내 내수시장 확대** 등 **국내 태양광 산업 육성방안 등도 적극 마련**하기로 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민경미 사무관(☎ 044-203-5172), 미주통상과 유의택 사무관(☎ 044-203-565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